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의 코로나19 백신접종 뉴스생산 관행

〈연합뉴스〉 기자 인터뷰를 통해

홍경수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부교수

이완수 동서대학교 미디어콘텐츠대학 교수

정영희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연구원

National Key News Agency's COVID-19 Vaccination News Production Conventions*

Through Interviews with News Reporters of <Yonhap News>

Kyung Soo Hong**

(Associate Professor, Ajou University)

Wansoo Lee***

(Professor, Dongseo University)

Young-Hee Chung****

(Research Fellow, Research Institute for Information& Culture, Korea University)

This study began with an attempt to find out why the national key news agency <Yonhap News> was not faithful in reporting on vaccination from the organization's internal production conventions. Through interviews with internal members, we intended to explain the causes of reporting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news production conventions and the conditions of news production. For analysi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three front-line reporters, one manager-level desk, and two editorial writers. As a result of interviews with members who produce news, the first research question's topic was divided into item selection & reporting direction, and news editing process. In the direction of item selection and reporting, ① government policy-compliant news selection and coverage through SNS lacking verification ② tones emphasizing the need for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Dongseo University's "Dongseo Cluster Project" Research Fund of 2022 (DSU-20220003)(이 논문은 2022년도 동서대학교 "Dongseo Cluster Project"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 (DSU-20220003)).

** hongks@ajou.ac.kr

*** wansoo1960@gmail.com

**** yeongsol@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

vaccination were found. In the news editing process, we found ① the opaque editorial policy not shared ② and the failure in the process of fact checking and gatekeeping. Such characteristics of news production conventions can be seen as serious problems regarding national key news agency. As for the condition of news production, which is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① dispersed perception of the target audience due to digitalization, ② reporting through a nationwide network and self-sufficient efficacy, and ③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were found. Such results can be presented as causes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Yonhap News' vaccination-related reports. We suggested that <Yonhap News> should launch major innovation in the structure of the newsroom in the wake of a disaster such as epidemics. In the event of a social catastrophe, the newsroom leadership should be strong to reorganize reporters flexibly. In addition, news coverage focus should be changed into the opinions of the general public. Lastly, the importance of fact checking and gatekeeping cannot be emphasized enough. Due to the digital environment, Yonhap News, which could directly meet readers, is caught up in two risk factors, speedy news release inclination and sensationalism, by participating in the click competition with general media outlets. It is undoubted that serious damages for the health of the public sphere are predicted when the key news agency competes with private media outlets for clicks. Our society has witnessed that when inaccurate or exaggerated information are spread with speedy news release inclination and sensationalism at the forefront, other media outlets quote it, and related information is rapidly disseminated through portals and grows into an infodemic. Vaccination information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health and well-being of the people must be fact-checked and verified again and again before being released. Researchers reminded that Yonhap News is a “public media company” operated with support from the national budget as a national news agency, and argued that Yonhap News needs thorough changes.

Keywords: <Yonhap News>, national key news agency, COVID-19 vaccination, factcheck, production conventions

1. 문제 제기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팬데믹을 선포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과 접종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보건 역학 전문가들은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만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중의 불안이 확산하면서 접종을 망설이거나 거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예방을 가로막는 글로벌 10대 위협 요인의 하나로 '백신 거부(vaccine hesitancy)'를 지목할 정도로 백신 거부 문제는 코로나 예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인식되었다(Puri, Coomes, Haghbayan, & Gunaratne, 2020).

한국에서도 백신접종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백신접종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과 기피의 원인은 상당 부분 미디어의 보도에 기인한다. 한국 언론은 예방접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줘 여론을 악화시키며(이혁민, 2021, 5), 코로나 팬데믹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과 공포를 불러오는 사회적 역기능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 되었다(이완수, 2021).

대중 매체가 건강 이슈에 대해 의제를 설정하고 프레이밍 하는 방식은 사람들의 건강 관련 신념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Hay, Coups, Ford, & DiBonaventura, 2009).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보도가 접종에 대한 수용 혹은 거부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연구 결과도 도출되었다(김영옥·소담이·김혜정, 2022; 김한나·장한일·장승진, 2021; 홍주나·안순태, 2022). 해외에서도 백신 뉴스 메시지 노출 방식이 백신접종 의향에 미치는 영향 연구(Chen, Dai, Xia, & Zhou, 2021; Palm, Bolsen, & Kingsland, 2021; Xu, Ellis, & Laffidy, 2020), 코로나19 정보에 대한 미디어 노출이 불안감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Liu, Zhang, & Huang, 2020) 등 미디어 보도 메시지와 백신접종 간의 관련성을 측정한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하지만 대중 언론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제를 어떻게 선택, 구성, 제작하는지에 대한 생산자 인식 또는 관행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이완수·정영희·홍경수, 2022). 백신접종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기피의 원인은 상당 부분 언론의 보도에 기인하기 때문에 뉴스가 언론 조직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재생산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백신접종에 대한 언론의 보도 경향에 주목해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제를 어떤 과정을 통해 생산하는지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연합뉴스>는 다른 신문사, 방송사, 그리고 인터넷 매체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대중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언론 매체로 평가된다(임중섭, 2018; 최영재, 2016). 연구자들이 <연합뉴스>가 보도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뉴스에 특

별히 주목한 것은 <연합뉴스>의 보도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다른 신문사, 방송사, 그리고 인터넷 매체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¹⁾ <연합뉴스>는 정부 재정 후원 매체로서 코로나 팬데믹 보도의 주요 의제 설정자 기능을 해왔으며, 특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보도하면서 오보를 내는 등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이완수·홍경수·정영희, 2022).

<연합뉴스>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사회적 역할, 뉴스 시장에서의 점유율, 그리고 사회적 의제 설정자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여론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지만 뉴스 도매상과 소매상 역할을 겸하는 <연합뉴스>는 코로나19 보도 과정에서 오보, 과잉보도, 편향보도, 그리고 해설중심 보도 등 여러 한계를 드러내 왔다(이완수 등, 2022). 그럼에도 <연합뉴스>가 왜 그렇게 보도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연구자들은 뉴스 생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고자 했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후 <연합뉴스>가 코로나19 백신접종 문제를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보도했는지, 뉴스를 직접 생산한 제작자의 뉴스 생산과정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연구 문제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언론이 백신접종에 관해 어떻게 보도하는가에 따라 백신접종에 대한 위험 인식과 예방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백신접종 뉴스 생산과정에 관한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한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사회적 질병 재난에 대한 미디어 조직 내부의 뉴스 생산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반복된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과학 의제를 다루는 언론사의 뉴스 생산 관행을 생산자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이를 성찰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사회적 재난의 시기에 미디어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연합뉴스>는 현재 국내 언론사로는 최대 규모인 600여 명의 기자가 글, 사진, 그래픽, 영상 등 하루 3천여 건 이상의 콘텐츠를 생산하여, 국내 언론사 210여 곳, 포털 등 뉴미디어 110여 곳,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280여 곳, 민간 기업 280여 곳에 공급하고 있다. 점차 영향력이 확대되는 인터넷 뉴스 부분에서도 <연합뉴스>의 점유율은 18.6%로 1위이다(<https://www.yna.co.kr/aboutus/company>).

2. 이론적 논의

1) 뉴스 생산과정에 관한 연구

미디어 생산과정에 대한 언론학자의 관심은 미디어 조직 내부에서 뉴스를 결정하는 과정에 집중되어왔다. 뉴스는 기자의 개인적 가치, 뉴스 생산 관행, 사회적 환경, 그리고 문화적 요인 등 다층적인 위계 요인에 의해 재구성된다(Shoemaker & Reese, 1996). 많은 저널리즘 연구자들은 뉴스 생산과정을 주로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 걸쳐 다층적으로 파악해 왔다. 그 가운데서도 뉴스 생산과정의 핵심적인 요소는 조직 내부의 관행이다. 브리드(W. Breed, 1955)는 언론사 기자들 인터뷰를 통해서 기자들의 조직의 편집방침에 대해 순응하거나 거부하는 이유를 사회화라는 과정으로 명명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자 했다. 그는 기자들이 편집방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삼투압처럼' 자연스럽게 내재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이 자신의 연구에서 특별히 '의무와 존경'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조직 내 사회화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와 존경'이 존재하는 편집국에서는 기자들의 사기가 충천하고 조직이 활기를 띠는 반면, 이 두 가지가 결여된 곳에서는 반대의 양상을 띠는다고 주장했다(Breed, 1955). 이 연구는 언론인이 소극적인 존재라고 평가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언론인들이 편집방침에 순응하고 이로부터 일탈하는 양상을 섬세하게 포착한 생산자 연구로 손꼽힌다.

뉴스 생산과정에 관한 중요한 연구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터크만이 수행한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한 연구다(Tuchman, 1972, 1978). 뉴스룸을 참여 관찰한 결과 터크만은 뉴스처리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으면서도 마감시간, 명예훼손, 상급자로부터의 책망 등과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객관성이라는 개념을 도출했다고 보았다. 그녀는 기자의 전문직주의가 진실을 은폐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는데, 저널리즘의 전문직주의가 19세기 자본주의와 연관되며, 전략적 의식이 되었다는 것이다(Tuchman, 1978).

이처럼 뉴스의 생산과정에 초점을 두는 연구는 언론인들이 생산과정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관찰하면서, 뉴스 선정이나 출입처와의 상호작용과정 등에서 작동하는 조건과 한계에 초점을 맞췄다(Berkowitz & Liu, 2016). 이러한 시각은 생산과정에서 구조적 압력과 행위자, 생산물 간의 역동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미디어 생산과정의 산물을 행위자의 역할보다는 구조적 제약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파악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임영호, 2015). 임영호(2015)는 미디어 생산연구를 조직 내외부의 구조적 맥락, 종사자의 직업 특성, 생산과정의 특성이나 작업 관행, 종사자 집단의 직업문화나 가치 등 조직 내부의 다양한 세력과 요인들을 파악하는 탐구 과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의 백신접종 뉴스 생산도 결국은 〈연합뉴스〉 조직 내외부의 구조적 맥락, 저널리스트로서의 직업 특성, 백신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정보의 부족 상황에서 이뤄지는 뉴스 생산 과정의 특수성, 그리고 조직 내부의 작업 관행 및 문화 등이 뉴스 생산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만들어낸 결과물로 평가된다. 뉴스 생산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생산 관행이나 절차와 같은 조직문화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오현과 이석호(2019)는 한국 신문의 뉴스 생산 문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신문사의 조직문화가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뉴스 생산 과정에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한다고 주장한다.²⁾ 뉴스 생산 조직은 뉴스 의제와 관점을 선택, 강조, 배제, 그리고 상술을 결정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헤스몬달프(Hesmondhalgh, 2006/2010)는 뉴스 생산연구를 “생산자가 커뮤니케이션 생산물을 제작 유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적인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는지”(146쪽)를 살펴보는 작업이라고 보았다. 뉴스의 내용과 방향은 일선 취재기자에 의해 일차적으로 결정되지만, 이를 편집 제작하는 조직 내부의 절차와 관행, 그리고 가치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뉴스 생산연구는 많은 요소 가운데 미디어 생산 주체인 미디어 조직에 집중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Beck, 2003).

2) 감염병 보도와 언론의 역할

언론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질병이 발생하면 위험 경고와 함께 예방에 대한 다양한 처방을 제시한다. 사회적 질병 문제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언론이 특별히 중요한 의제로 선택해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대상에 속한다. 하지만 코로나19 및 백신접종에 관한 언론 보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아왔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언론계 내부에서도 ‘팬데믹 저널리즘’이라는 표제 하에 코로나19 시대에 언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집중하여 분석했다.³⁾ 이들 비평 기사는 코로나19에 관한 한국 언론의 보도가 의학적, 과학적 근거보다는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되고 기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의학/과학 전문기자가 아닌 사회부 기사가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의학적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수준 높은 보도를 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 언론들은 코로나19 문제를 보건 역학적 의

2) 특히 ‘위계적 및 순응적 문화’를 중심으로 ‘폐쇄적 및 비성찰적 문화’와 ‘비체계적 및 비조직적 문화’가 ‘자본 종속적 문화’, ‘전문성 배양 억제 문화’, ‘소통 부재 문화’, ‘협력 부재 문화’ 등의 조직문화들이 나타나고 작동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했는데, 이 조직문화들은 각각 또는 상호작용 속에서 중앙 일간지들의 조직운영과 기사 생산과정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면서 여러 측면에서 저널리즘의 원칙과 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3) 〈시사IN〉 제688호는 ‘팬데믹 저널리즘’이라는 표제 하에 코로나19 시대에 언론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김연희, 2020, 11, 19, 2020, 11, 23, 2020, 11, 24a, 2020, 11, 24b, 2020, 12, 1, 2020, 12, 15, 2021, 4, 13; 변진경, 2020, 11, 18, 2020, 12, 1 외 다수).

제가 아닌, 언론의 정파성에 따라 정치적 투쟁과 담론 의제로 삼았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2021년 중반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언론 보도의 관계도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언론 보도 양상을 파악한 연구에서는 여러 주제 가운데 예방접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윤현준·정백근, 2021). 윤현준과 정백근(2021)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일인 2020년 1월 20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의 기사를 분석하여 7가지 토픽을 추출했다.⁴⁾ 언론의 보도 내용과 백신접종 의도와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홍주나와 안순태의 연구(2022)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국내 언론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며 국민에게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과 백신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언론의 보도 행태가 국민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 백신접종에서 소셜미디어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과정에서 언론사의 소셜미디어 채널의 영향력을 조사한 연구도 수행되었다(홍주현·차희원, 2022). 홍주현과 차희원(2022)은 유튜브에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접종 관련 이슈의 확산 과정을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을 전달하는 언론사 채널의 영향력이 컸고, 조회 수도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채널에서 감정적 헤드라인이 더 많았고, 보수 성향의 개인 채널이 정부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를 확산했고 동영상 조회 수도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를 백신접종 이슈와 연결시킨다면, 정부는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는 부정적인 메시지와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 언론은 부정확한 정보나 허위정보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야 할 책임이 수반된다. 유튜브상에서 확산된 코로나19 백신 관련 영상의 주요 특성과 이용자 반응의 차이를 분석해 기관 및 단체, 언론사, 정부 채널에서는 사실 중심 보도와 더불어 허위정보에 대한 보도도 한 축을 이룬다는 사실도 밝혀졌다(이미나·홍주현, 2021).⁵⁾

한국에서 감염병에 관한 뉴스 생산 및 언론 보도 양태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5월 당시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가 국내에서 발생했을 때, 국내 언론은

4) 토픽은 예방접종(20.0%), 면역 효과(14.9%), 생산(14.5%), 부작용(13.8%), 유통(13.7%), 물량 확보(13.5%), 검도 및 허가(9.7%) 순으로 분류되었다. 윤현준과 정백근(2021)은 원활한 예방접종을 이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문제해결형 언론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5) 이미나와 홍주현(2021)은 579개의 코로나 관련 유튜브 영상을 분석하여 진보 성향 채널은 백신접종을 찬성하는 긍정적 정서의 비율이 높았고, 보수 성향 채널은 백신접종에 반대하는 부정적 정서의 비율이 높았음을 밝혀내었다. 백신접종이 시작된 이후에는 정부 채널의 영상이 증가했고, 긍정적 정서의 영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 경쟁하듯 신종 감염병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면서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생산했다. 국민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고 의료 전문가들은 언론의 냉철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권태훈, 2020, 5, 1) 이에 2019년에는 한국과학기자협회와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가칭 '감염병 보도 준칙'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자협회, 과학기자협회는 2020년 4월 28일 감염병 보도준칙을 마련했고, 이를 감염병 보도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감염병 보도준칙의 기본 원칙은 해당 질병에 대해 정보가 필요한 대상에게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데 있다. 감염병 보도준칙에 의하면,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하며,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고,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 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감염 가능성과 감염병 연구 결과에 대한 보도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 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하며, 특히 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의료계·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감염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에 패닉·대혼란·대란·공포·창궐 등 과장된 표현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도 주의해야 한다(한국기자협회 외, 2020, 4, 28).

하지만 뉴스 생산과정에서 이 준칙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슈가 변질되어 방역보다는 정치적 관점에서 더 많은 뉴스가 생산되었다는 평가도 있다.⁶⁾ 이에 연구자들은 코로나19 관련 뉴스 자체가 비판받아온 상황에서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뉴스를 언론사 내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하는지를 살펴보고, 질병 관련 뉴스생산 관행을 분석하여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저널리즘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6) 팩트체크 언론사를 운영하는 김준일 대표는 한국 언론의 코로나19 보도 특징을 '오라기락 잣대', '방역의 정치화', '사건기사 취재방식', '속보 중심', '기사 쪼개기', '정부 발표에 의존'이라는 6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특히 방역의 정치화는 정부의 방역에 대한 일부 언론의 판지걸기로 대표되는 현상이었으며, 김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보도된 국내 75개 주요 언론사 코로나19 백신 기사를 '코로나', '백신', '문재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청)' 등 5개의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백신'과 '문재인' 키워드가 뚜렷한 양적 선형 관계를 보이지만, '백신'과 '질병관리본부'는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선형 관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선형 관계가 백신 보도와 관련하여 방역 측면보다 정치 쪽에서 더 많은 기사가 쏟아졌다는 것을 확증한다고 지적했다(김준일, 2021, 3, 4).

3) 〈연합뉴스〉의 코로나19 뉴스 보도 양태와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연합뉴스〉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 많은 양의 관련 기사를 생산했고, 코로나19 감염상황과 백신접종 관련 의제를 설정해 광범위하게 전달하는 의제 설정자 기능을 수행했다(이완수 등, 2022).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연합뉴스〉는 몇 차례의 대형 오보를 내는 등 뉴스 정보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⁷⁾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속보 매체로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한 국내외 정보를 가장 발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보건환경 감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완수와 그의 동료들(2022)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제에 대한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제에 대한 사실적 전달 기사보다 해설성 기사에 치중했으며, 보도 자료에 의존해 수동적인 뉴스제작을 했으며, 백신접종에 대한 비판적 관점보다 사실을 단순 전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정 지역과 국가, 그리고 보도 의제를 편향적으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평가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관련된 중요 이슈인 백신접종 사안에 대해 〈연합뉴스〉는 적극적으로 취재하기보다는 보도 자료에 의존했고 팩트체크도 전반적으로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연합뉴스〉는 다른 공영매체와 함께 학계의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되어왔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에 대한 외국 기자들의 인식 변화(김창룡, 2010),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정체성 및 역할 분석(남재일·최영재, 2013; 임종섭, 2019; 최영재, 2016), 세계 뉴스통신사 간 뉴스 비교 분석(이민규·육은희, 2014; 이화행·정성호, 2014), 〈연합뉴스〉의 보도(리)프레임 연구(김은주·방정배, 2010; 양희정, 2021), 코로나19 백신접종 뉴스 보도 형식과 의제(이완수 등, 2022) 등이 있다. 〈연합뉴스〉에 대한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연합뉴스〉는 속보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정확성과 심층성이 부족하고(남재일·최영재, 2013), 정권의 의중을 살피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보도 경향도 보였고(최영재, 2016), 종종 광고주와 결탁하는 문제도 야기했다(김창룡, 2018). 이러한 비판은 뉴스 통신사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보도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다(심영섭, 2018).

현재의 〈연합뉴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뉴스 소비의 중심이 옮겨가면서 뉴스 통신사로서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었으며(김경희·이소현, 2011). 이를 극복하기 위해 뉴스 공급 모델을

7) 2021년 10월 28일에는 '위드 코로나 싱가포르서 신규 확진 5천 명 넘어 역대 최대' 기사를 보도했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명의 환자를 제외하고 모두 다양한 기저 질환자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Strait Times, 2021, October 27).

‘뉴스 통신사-고객사-소비자’로 이어지는 뉴스 도매상 역할과 함께 ‘뉴스 통신사-소비자’로 직접 연결되는 소매상 역할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남재일·최영재, 2013). 뉴스 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위상은 변했지만, 사회적 이슈를 실시간으로 확산시키는 의제 설정자로서의 영향력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러한 〈연합뉴스〉에 대한 선행 연구의 대부분이 조직의 사회적 역할이나 텍스트 분석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그 텍스트가 실제로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관한 생산자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로는 이민규와 강연곤(2015)이 〈연합뉴스〉 기자 20명과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저널리즘 활용방안에 대해 인터뷰한 분석이 생산자 인식 연구의 유일한 사례이다. 학계에서도 〈연합뉴스〉의 기사에 대해서는 비판적 분석이 종종 이루어져 왔지만, 뉴스 생산과정과 관행에 대해서는 성찰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의 백신접종 보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력과 이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백신접종 뉴스가 생산되는 과정과 생산 관행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언론의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 대부분은 언론이 사회 구성원들의 백신접종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분석은 뉴스 텍스트의 소비 및 사회적 영향력을 규명할 수는 있으나, 재난 상황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줄 메시지가 생산되는 구체적인 과정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 국가 정책, 집단 간 이해관계 등 다수 이슈가 얽혀있는 백신접종에 대해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뉴스 생산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학술적으로나 저널리즘 실무적으로나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다.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문제

연구자들은 2021년 2월 26일 한국에서 백신접종 개시 이후 〈연합뉴스〉가 백신접종 관련 뉴스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산하는지, 또한 뉴스생산 조건의 특징은 무엇인지 내부 구성원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백신접종’에 관한 뉴스 생산 관행(아이템 선정 및 취재 방법, 편집과정)과 자사 뉴스생산 조건의 특징을 생산자인 기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연합뉴스〉의 코로나 19 백신접종 뉴스생산 관행의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연합뉴스〉의 코로나 19 백신접종 뉴스생산 조건의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를 두 개로 설정한 이유는 〈연합뉴스〉의 코로나19 백신접종 뉴스의 생산 관행을 설명하는 두 가지 요소로서 〈연합뉴스〉 내부의 게이트키퍼링 과정 등 뉴스 생산 관행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관행을 가능하게 하는 뉴스생산의 조건들을 파악함으로써 뉴스생산의 관행을 비교적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정보 중 뉴스 아이টে를 선별하여 보도하는 기자들의 뉴스 제작과정은 관행화(routinization)되어 있는데, 이는 뉴스제작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 그러한 관행은 뉴스의 속보성과 생산성 측면에서는 유용하나,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같은 특이한 사안을 다룰 때도 적합한지는 꼼꼼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방법

(1) 인터뷰 대상자 선정

본 연구의 목적은 〈연합뉴스〉 내부 구성원들이 백신접종 뉴스를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 만들어 내는지 뉴스 생산 관행을 파악하는 것이다. 뉴스 생산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참여관찰과 생산자 인터뷰가 필요했으나 조사 기간(2021년 12월)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최고조 상태여서 기자들과의 대면접촉이 어려웠다. 또한 당시 〈연합뉴스〉가 처한 내외적 요건으로 인해 섭외도 쉽지 않았다.⁸⁾ 따라서 연구자들은 편집국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고, 백신접종에 관한 기사를 많이 쓴 기자 리스트를 작성했다.⁹⁾ 이 리스트에서 인터뷰 대상 후보자를 추린 뒤 〈연합뉴스〉 편집국장에게 인터뷰이 섭외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취재기자 세 명과 국제뉴스 담당 데스크 한 명을 섭외할 수 있었다.

일선 취재기자 3명과 데스크 1명은 8년에서 22년의 제작 경력을 가진 중견 기자들이었으며, 백신접종 관련 기사를 활발히 작성한 경험이 있다. 연구자들은 편집국과 별도로 사회적 의제를 논평식으로 다루는 ‘연합시론’을 쓰는 논설위원들도 인터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논설실장을 통해 두 명을 추가로 섭외했다. ‘연합시론’이 〈연합뉴스〉의 전체적인 논지를 대표하고 있으

8) 당시 〈연합뉴스〉는 광고형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제재받아 포털 유통망에서 퇴출 통보받은 상태였다.

9) 10건 이상의 국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20 명, 국제뉴스 작성자는 10여 명이었다.

며, 다른 신문사나 방송사의 논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에 논설위원과의 인터뷰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인터뷰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interviewees

Interviewee	
Reporter	A
	B
	C
Desk	D
	E
Editing board member	F

(2) 인터뷰 방법과 절차

인터뷰는 2021년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했다. 인터뷰 방법으로는 전화 인터뷰와 서면 인터뷰가 함께 활용되었다. 인터뷰 섭외 도중에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여 1일 6,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자를 직접 만나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취재기자와 데스크는 1시간 이내의 전화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전화 인터뷰보다 서면 인터뷰를 선호한 논설위원들과는 서면 인터뷰를 실시했다. 서면 인터뷰는 한 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진행했다. 첫 번째 응답에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거나 보다 심도 있는 응답이 기대되는 질문들은 2차로 질문지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논설위원 인터뷰에서는 연구자 1명이 이들에게 인터뷰 질문지를 보내 답변받았으며, 내용이 충분치 않은 답변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문하고 다시 답변받는 식으로 인터뷰 내용을 보완했다.

응답자들이 시종일관 익명 처리 여부에 민감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응답자들의 연차와 지위, 그리고 성별만 기술하고 모두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¹⁰⁾ 본 연구를 통해 <연합뉴스>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을 염려하는 태도도 느껴졌다. 연구자들은 그 염려를 줄이고 심도 있는 내면의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 인터뷰 과정에서 감정적 평가를 배제하고 중립적이고 객

10) <연합뉴스>의 내부인들은 그 정도의 정보만으로도 응답자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직무와 직위만 표기하였다.

관적인 언어를 사용하고자 했다. 그 결과 〈연합뉴스〉의 백신접종 관련 뉴스가 조직 내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지 비교적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4. 분석 결과

연구자들은 응답자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연합뉴스〉의 백신접종 뉴스생산 관행의 특징과 뉴스 생산의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추출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는 정부 정책에 집중하여 아이টে를 선정했고, SNS를 적극 활용하여 취재했으며,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보도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실 및 논설위원실에서 공유되는 편집방침은 없었고, 속보성이 중요시되는 뉴스 통신사의 특성상 팩트체크나 게이트키퍼 과정이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뉴스 생산과정에 대해 기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기자들은 타깃 오디언스를 일반 소비자로 설정하는 경우와 언론사로 인식하는 경우 등 혼재되어 있었고, 백신접종 뉴스 생산 환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취재가 부족하고 의·과학 전문가와 취재인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직무수행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사 기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자족적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1) 〈연합뉴스〉의 코로나19 백신접종 뉴스 생산 관행의 특징

(1) 아이টে 선정 및 취재 보도의 특성과 방향

① 정부정책 순응적 뉴스 선택과 SNS를 통한 검증 부족한 취재

〈연합뉴스〉의 백신접종 보도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가 정부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한 응답자는 그 이유를 정보의 불균형성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부에는 보건과 질병을 담당하는 전문적 조직과 인력 및 방역 담당자가 있으나, 언론사 기자들은 그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으므로 정부 정책이나 발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정부는 전문적으로 보는 조직들이 있고 그 판단에 따라 정책을 만드는 건데, 거기다가 방역을 정부가 총괄을 하는 거니까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격차가 너무 심한 거죠. 100:0 정도 되는 거죠.” (A)

정보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언론사 기사는 정부가 발표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기 쉽다. 또한 긴박하게 바뀌는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는 뉴스통신사 기자들에게 중요한 뉴스원이기도 하다. 기자들이 취재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정부 발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이를 속보로 뉴스를 생산하는 것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의 역할과 의무와는 거리가 있다. 정부 정책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반박 불가능할 정도의 검증과정이 생략되기 쉬우며, 부정확한 정보를 사회에 퍼트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결부된 비상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취재보다는 정부 발표에만 의존하게 되어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방역 당국의 책임자들과는 대면 취재는 물론, 전화 취재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생겼다고 응답했다. 기자단을 중심으로 단톡방이 만들어졌고, 그곳을 통해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지는 소위 'SNS를 통한 비대면 취재방식'이 생겨난 것이다.

“정기적인 브리핑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미국식으로 하는 거죠. 거기서 모든 정보와 답변을 주고받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생기는 정보들, 해외에서 날아오는 소식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등 이런 것을 기자 단톡방에서 질문도 공개가 되고 그 질문을 정부에 넘기면 정부가 거기에 답변을 달아서 모든 기자들에게 공유가 되는 시스템인 거죠.” (A)

기자단의 단톡방은 중요한 정보들이 공유되고 취합되는 일종의 정보 파이프라인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새로운 방식의 뉴스 정보의 집적 및 유통 과정을 등장시킨 것이다. 대면 취재가 어려운 환경에서 SNS 취재는 대안적 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 단톡방을 통해 흐르는 정보는 한계가 있다. 질의응답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돌발적 상황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없게 하고, 다수의 언론사가 단톡방에 공유한 정보를 기준으로 기사를 작성하므로 모든 언론사의 기사들도 표준화될 위험성이 크다. 즉 백신접종이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전 언론사가 동일한 주제를 동일한 방식으로 보도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 기자단 안에 단톡방인 거죠. 질문을 올리면 간사가 식약처나 질병관리청이나 복지부에 전달을 하고.... 중수본이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게 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협업을 위해 전 부처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중수본에만 들어가면 외교부 관련 시안이라든지 행안부 관련 시안이라든지 산업부 관련 시안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도 수집이 되는 거죠.”(A)

보도 아이템 선정에서의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 SNS를 통한 정보의 일방적 흐름은 언론사를 정부의 대변자로 만들 위험이 있다. 정부 정책에 초점을 둔 아이템 선정은 외신 출처의 보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외신 담당 기사는 <연합뉴스>의 백신접종 보도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정책을 고려하며 정부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주는 것을 염두에 둔다고 밝혔다.

“백신접종 뉴스 보도할 때 한국 정부의 정책을 고려하죠... 정부 편을 들거나 비판할 필요는 없으나 먼저 해본 나라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부작용도 생기더라... 타산지석이던 모범사례로 삼을 수 있는 것을 기사 선택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D)

정보가 제한된 환경에서는 정부의 보고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기사 작성에서 국가 정책을 염두에 두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는 면도 있다. 하지만 <연합뉴스> 기자들의 독자적인 취재나 심층 보도의 과정이 두드러지지 않은 채, 정부 정책이나 보도에만 의존한다면 언론이 정부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언론은 왜 정부 정책에 집중하는 것일까? 한 응답자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정부밖에 없다고 실토했다.

“(백신접종 시작된) 처음에는 안전성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과 논조가 맞는 것에 대해) 네,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보를 받는 곳이 정부밖에 없으니까요.”(C)

기자 인터뷰를 통해, <연합뉴스>는 백신 정보의 불확실성과 정보 통로의 한계로 인해 뉴스원을 다양화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불어 정부 보도 자료의 신뢰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응답자가 지적한 바와 같다.

“저희 백신 보도에 고침이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서 보도 자료를 잘못 내기 때문이에요. 수치가 다 틀려요. 하루에 한 번씩 복지부 질병관리청이 일이 많으니까 수치가 다

틀려서 계속 복지부 자료 수정에 따른 고침이고 계속 그런 식이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팩트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C)

살펴본 것처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백신 관련 뉴스의 경우, 정부의 정책 발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대학 연구소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 의료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뉴스원에 접근하여,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삼각 확인하는 적극적인 취재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심도 깊은 검증과정을 누락한 채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신속 보도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사회적 재난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언론이 수행해야 할 환경감시기능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② 백신접종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며 상반된 뉴스가 등장했다. 백신접종이 위험하다는 주장과 백신접종만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주장이 공론장에서 대립한 것이다. <연합뉴스> 특히, ‘연합시론’을 쓰는 참여자들에게서는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조가 두드러졌다. 한 인터뷰 대상자는 ‘백신접종’을 ‘연합시론’ 소재로 정하는 중요한 원인 하나가 ‘코로나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고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시론을 쓸 때 개인적으로 ‘코로나 위험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무엇보다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 사망자 추이를 보고 논설의 주제를 정하죠.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추이나 백신접종 현황, 또는 부작용 등의 추이도 논설 주제를 정하는데 고려하는 요인의 하나입니다.”(E)

또 다른 응답자도 ‘연합시론’을 통해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쪽으로 사회적 여론을 촉구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는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런 신념을 시론을 쓸 때 반영한다고 답했다.

“백신접종률을 높여 사회 구성원의 감염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시론이나 논설에 담고자 합니다.”(F)

〈연합뉴스〉가 시론이나 논설을 내보낼 때 조직 차원에서 강조하는 백신접종 아이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암묵적 관행은 있다고 응답하였다.

“내부 조직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아이템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진자나 환자, 사망자 등 추이, 병상 문제와 현장 의료진의 한계 상황과 관련된 ‘코로나의 위험성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암묵적 관행은 있지요.”(E).

응답자들의 답변에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자주 드러났으며, 또한 그 반대로 뉴스 아이템 선정이나 보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정부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연합시론’을 쓰는 응답자들이 백신접종 관련 시론이나 사설을 쓸 때 사회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코로나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집단의 공감대 형성, 둘째 보건 위기에 대처하는 각계의 노력과 희생을 조명해 보는 내용(E), 셋째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필요하다는 점(F)을 들었다. ‘연합시론’ 작성자들은 코로나 전염병을 중대한 사회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신접종을 높이는 쪽으로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응답자들이 사회적 문제해결이라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③ 무정파적인 소극적 보도

응답자들은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무정파적으로 중립적으로 객관적 사실보도에 집중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중립적 기사의 의미가 비과학적이거나 근거 없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취재하여 확산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쪽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쪽은 저렇게 주장한다는 소극적 차원의 중립을 말하는 것이어서 안타깝다고 토로한 응답자도 있었다.

“(정부에서) 백신접종을 일부러 늦게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최초가 될 이유가 없었고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었죠. 미국이랑 영국, 이스라엘이 다급한 상황에서 먼저 백신을 접종하고 확진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희는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어떤 보도가 나왔나면, “미국·영국·이스라엘 천국, 한국 지옥”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A)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종을 일부러 늦게 시작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일부 언론이 ‘한국 지옥’ 프레임을 제시했고 이것이 대중에게 유포되었을 때 <연합뉴스>의 보도는 어떠했을까?

“저는 정말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사를 써서 ‘그런 프레임 자체가 맞지 않다, 우리가 성과를 내었다’고 자화자찬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백신접종을 늦추게 만든 상황 자체는 굉장히 잘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정책적 판단이나 미스는 있지만 그게 우리가 지옥으로 평가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 기사를 적극적으로 쓰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A)

왜곡된 정보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유포되는 상황에서 한 기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계속 아쉬움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백신접종 관련 기사에 대해 근거 없이 불신하는 대중의 태도로 인해 대중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도 있었다.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이 깊게 있는 분들은 과학적 기술도 믿지 않으셔서 기사로도 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사를 써도 설득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백신은 이런 효과가 있지만 이런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고 써도 보고 싶은 부분들만 봅니다.” (B)

뉴스 생산자들은 백신접종 기사에 대한 독자의 반응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접종에 대한 상반된 입장과 의견을 반영하여 기사를 작성해도 대중은 선택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개인의 불편과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사를 쓸 수는 없었던 한계를 인정하였다.

“저는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알고 국가를 전체적으로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때문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사정이나 그분들을 위한 기사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A)

응답자들은 <연합뉴스>의 보도가 정부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발생한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의 진솔한 자기 고백 속에서 〈연합뉴스〉 백신접종 보도의 한계와 개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백신접종 뉴스 편집과정

① 공유되지 않는 불투명한 편집방침

연구자들은 〈연합뉴스〉의 기자들이 백신접종 관련 뉴스를 작성할 때 공유하는 편집방침이나 원칙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기자 대부분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지나친 불안 조장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하였다. 한 응답자는 자신의 취재보도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 백신접종 관련 의제는 드라이한 사실을 빠르고 정확하게 정파성 없이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D)

이와 같은 보도 원칙은 언뜻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감염병 보도에 일반적인 사건·사고 보도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생각할 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원칙으로는 일반 언론사와 차별적인 기사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간 통신사로서 〈연합뉴스〉 뉴스의 차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백신에 관한 불확실한 정보가 대량 생산되고 정보의 흐름이 불균형한 상황에서, 사실 검증 없는 ‘드라이한 사실 보도’는 자칫하면 왜곡된 정보를 생산하여 그릇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연합뉴스〉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된 보도 원칙은 부재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지나친 불안 조장은 하지 않는다’는 답변 역시 회사에서 언론사 차원에서 결정하고 구성원에게 확산시킨 것이라기보다는 기자가 개별적으로 내재화시킨 저널리스트의 관습처럼 보였다. 이러한 예상은 다수의 응답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저희는 보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움직이자’라는 메시지가 내려오지는 않아요. 전체 조적이 다 그래요. 이거는 현장 기자의 판단에 최대한 맞춰주고.... 어떠한 방향이 와서 거기에 따라야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A)

“(백신접종 관련 기사를 쓸 때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우선 쓰고 (기사를) 보고서 논리적으로 이상하거나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거나 한 부분은 물어보죠. 〈연합뉴스〉는 가치중립적인 기사를 쓰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는 주지 않

는 걸로 알고 있어요.” (C)

〈연합뉴스〉의 일선 취재 기자들은 백신접종 보도에 있어서 언론사의 취재 및 보도 가이드라인 없이, 공유된 편집방침 없이 저널리스트 개인의 철학과 생각에 따라 보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백신 문제가 정치적인 상황에 활용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에 휘말리는 기사를 쓰고 싶지 않죠’(A) 라는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연합뉴스〉의 기사가 무색무취의 방향성 없는 특징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전사적인 편집방침의 공유 부족과 연결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심층 인터뷰가 진행된 2021년에는 이미 한국기자협회 등에서 ‘감염병 보도 준칙’을 마련했고, 일선 기자들이 감염병 보도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일선 기자들에게는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나의 언론사에서 생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층위의 기사들이 전체적인 편집방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산발적인 방향에서 뉴스가 생산되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합시론’과 일반 취재 기사들 사이에서 감지되는 미묘한 어긋남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물었다. ‘연합시론’은 일반 신문사의 사실과는 성격이 다른 면이 있지만 외부 필진이 아니라, 내부 논설위원들이 작성하기 때문에 언론사의 공식 견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연합뉴스〉의 일반적인 취재 기사는 ‘연합시론’의 위상과 효과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연합시론’은 일선 취재 기자들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내에서의 위상이 일반 언론사와 달리 그리 높지 않고, 일부 시론은 취재 기자의 기사와 겹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논설위원들이 저희 기사를 보고 쓰시는 것이라서 따로 영향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먼저 기사를 쓰고 그것을 참고해서 논설위원의 주장을 쓰시는 것이라 대부분이 저희 기사랑 많이 겹치거든요.” (C)

한 응답자는 ‘연합시론’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신의 취재 분야와 관련된 주제의 시론이 나올 경우에는 유심히 읽어본다고 답했고, ‘연합시론’이 지역 언론사의 논조 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의견을 밝혔다.

“연합시론이 다른 언론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조금 미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시각이라서 저희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시각이죠.” (C)

살펴본 바와 같이 <연합뉴스>는 언론사로서의 편집방침을 구성원들에게 강력하게 제안하거나 내재화시켜 공유하게 하기보다는 기자 개개인이 자신이 설정한 저널리스트로서의 양심에 따라 기사 작성을 하도록 하는 ‘분화된 문화’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화된 문화’는 ‘연합시론’을 쓰는 응답자의 인터뷰에서도 반복적으로 발견되었다. ‘연합시론’을 쓸 때 내부적으로 공유되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없고 특별한 준칙 없이 상황에 맞춰 시론이 구성된다는 것이다. 팬데믹이라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정확하고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천으로서의 통신사의 중요성과 생산된 기사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일관된 기준이 없는 편집방침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일부 응답자는 백신접종 보도에 관해서는 논설위원실과 뉴스를 보도하는 편집국 간에 편집 방향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없다고 밝혔다. 논설위원실의 의견이 편집국 보도 방향과 다른 경우는 거의 없으나, 일상적으로 논설위원실에서는 편집국 보도 방향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논설위원실과 편집국의 입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부 관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일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떤 원칙이 정해진 것도 없죠. 사안에 따라 편집국 보도 방향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필요할 경우 협의할 수 있어요.”(E)

논설위원실과 편집국의 입장이 일치해야 한다거나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감대 자체가 없고, 아주 중대한 문제에 관한 생각이 다르다면 협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연합뉴스> 논설위원실에서 작성하는 ‘연합시론’은 편집국의 편집 방침과 독립적으로 작성되며, 일반적으로 사실과 일반 기사의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일반 신문사와는 대조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기사들의 논조의 어긋남이 대중에게 혼돈된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② 팩트체크와 게이트키퍼 과정의 결탁

백신접종 보도는 국민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백신과 관련하여 가짜 뉴스가 대량으로 생산되어 혼란이 야기되자, 일부 언론사들은 팩트체크 부서를 운영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¹¹⁾ 하지만, <연합뉴스>의 팩트체크 활동은 주로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대

11) 코로나19 관련 이슈에 대해 가장 많이 팩트체크를 시도한 SNU 팩트체크는 2021년 1월 28일부터 약 7개월간 154건의 보도 및 정보를 팩트체크하였다. KBS(88), 연합뉴스(68), 뉴스핌(61), 한국경제(57), 매일경제(55), 채널 A(52), JTBC(46), 아주경제(45), 뉴스톱(27), SBS(26), YTN(24) 등이 팩트체크 횟수 상위권에 속했다. 3회 이상 시도한 팩트체크 이슈에 대한 담당 기관과 매체의 연결정도중심성(degree)을 분석한 결과, SNU 팩트체크가 가장

상으로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자사의 뉴스가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기사인지 검증하는 실질적인 검증의 과정으로서의 팩트체크와는 거리가 있었다. 팩트체크와 게이트키퍼링 과정의 결락이라 할 수 있다. 결락이란 있어야 할 부분이 빠져서 떨어져 나간 상태를 가리킨다.

“기사를 쓰면 보통 그날 부서에서 나오는 기사를 전달하는 데스크들이 보시고 그다음에 고치고 싶은 거라든지 보강하고 싶은 부분은 상의를 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계속 상의를 해서 넘기는데 신문처럼 기사 하나를 몇 시간 동안 보고 하지는 못해요.” (A)

많은 기사를 빠른 속도로 송고해야 하는 통신사의 속성으로 인해 기사를 데스크킹하는 과정이나 팩트체크 과정이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기사 검증이 취재 기자와 데스크 사이에서 1단계의 검증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에디터나 국장도 기사를 보기는 하지만, 속보가 대부분인 <연합뉴스>의 경우 다수의 기사가 ‘취재 기자-데스크’라는 한 단계의 간략한 검증과정을 거쳐 공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가 의견을 많이 묻고, 누군가 발표하는 것을 속보를 내는데 정부의 발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속보로 처리합니다. 나중에 기사를 덧붙이는 건 종합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종의 팩트체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

‘정부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는 저널리즘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만, 검증이 부족한 정보를 부득이하게 전달할 수도 있다는 가정은 쉽게 누락되었다. 더 나아가 어떤 정부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말을 믿는 전제는 너무나도 순진한 전제가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기사를 덧붙이는 것을 일종의 팩트체크라고 간주하는 것도 저널리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가벼운지 보여준다. 자신이 쓰고, 얼마 뒤에 보완해서 다시 스스로 팩트체크하는 셈이다. 데스크킹 과정이 단순한 게이트키퍼링 과정에 대해 한 응답자는 오히려 ‘건강한 기사를 만들 수 있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장점을 강조했다. 기자들은 뉴스 통신사의 다소 느슨한 데스크의 게이트키퍼링 과정을 오히려 선호한다는 것이었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합뉴스, 매일경제, 한국경제, KBS, 뉴스핌, 아주경제, 채널A, 머니투데이, 국민일보 순이었다(류승희·정정주, 2020).

“네, 그래서 저는 (데스킹이 덜한 쪽이) 더 건강한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팩트라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활용 가치가 다른 건데 집필자도 그런 가치 판단을 하기엔 너무 바쁘고 회사도 바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저희 회사의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는 있죠. 그 이후에 쓰는 해설 기사는 좀 다르지만, 첫 기사들은 가치 판단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드라이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A)

데스킹이 단순한 것이 오히려 보도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응답에서 기자가 게이트키퍼 과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는 데스킹 과정에서 1차로 이뤄지고, 더 전문적인 팩트체크는 회사의 전문 부서에서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팩트체크 전문부서가 기자들의 기사 검증보다는 외부 기사의 검증하는 기사를 산출하는 데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수많은 자사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직 내에는 팩트체크 팀이 설치되어 있으나, 전체 기사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기보다는 독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사실들을 선택하여 일종의 특집 기사를 제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집 제작부서라고 한다. 팩트체크 팀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자사의 기사 생산의 건장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이템마다 절차가 너무 다양해서 팩트체크를 하는 팀이 따로 있긴 한데, 아이টে에 따라 취재하는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정해진 것은 없고 팩트체크 팀에서도 따로 기사를 생산하지요. 기자는 자신이 쓰는 기사를 검증하고, 팩트체크 팀은 별개의 기사를 씁니다.” (B)

이와 같은 허술한 게이트키퍼 과정과 팩트체크 과정의 결락은 심각한 오보의 원인으로 보인다. 코로나 시기 <연합뉴스>는 몇 차례의 대형 오보를 냈다. 2020년 4월 2일 송고된 ‘코로나 19로 국내 첫 의료인 사망’보도가 대표적이다. 코로나와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적지 않은 시기에 ‘의료인’이 ‘코로나 19’로 ‘사망’했다는 소식은 대중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 충분했다.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알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전문 의료인의 사망은 일반인에게는 충격은 더욱 컸다. 속보에 이어 종합까지 3꼭지로 보도된 이 내용은 삼시간에 퍼져나갔다(김달아, 2020, 4, 2). 이로 인한 불안감은 <연합뉴스> 보도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보다 수십 배로 확산됐다. <연합뉴스>는 2시간 만에 오보를 인정한 뒤에 기사를 삭제했다. <연합뉴스>는 기사를 삭제했지만, 이를 보도한 <서울경제>의 ‘코로나19로 국내 의료인 첫 사망’ 등 10여 개의 뉴스 보도

는 아직도 온라인에 남아있다(이주원, 2020, 4, 3). <한국일보>와 <중앙일보>만 오보에 대해 사과했을 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언론은 소수였다(김도연, 2020, 4, 3). 오보인 기사를 바탕으로 한 파생 보도 역시 오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오보의 파급력이 타사 보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합뉴스>의 다른 기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다. 그렇다면 기자들은 한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논쟁이 될 경우 어떻게 보도하는 것일까? 특히 한 정파 쪽에서는 사실이 아닌 거짓 사실을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양쪽 의견을 균등하게 보도한다고 답했다.

“‘이쪽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부는 이렇게 해명했다’ 뭐 이렇게만 쓰죠. (근거가 되는 팩트가 빈약한 경우에는) 비판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제 입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전문가나 정부의 코멘트로 하죠.” (C)

문제는 한편의 의견이 부정확한 주장이고, 다른 쪽의 의견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주장일 때도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양쪽 의견을 균등하게 보도할 때에 발생한다. 공개된 기사가 부정확한 내용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정정보도가 이뤄질까? ‘수정’보다는 ‘고침기사’ 형식으로 새롭게 기사를 작성한다고 하였다. 데스크 역시 고침 기사를 발행하는 쪽을 권하며, 기사 수정 지시는 흔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미 기사가 올라가면 수정이 안 되고, 고침 기사를 내보내는데 기사를 새로 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고침을 하는지를 넣어서 고침을 하게 되어있고 기사를 함부로 수정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B)

“저희는 특히 빨리 나가는 기사인데, 지체할 수가 없죠. (만약 쓴 기사가 부정확한 경우엔) 다 고쳐야죠. 기사를 고침을 하거나 최악의 경우는 전문 삭제를 하죠. 기사고침은 종종 하지만, 팩트가 틀렸다고 해서 삭제를 하는 경우는 잘 없죠.” (C)

속보성 기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통신사가 잘못된 기존 기사를 수정하지 않고 새로이 기사가 발행하는 상황은 가짜 뉴스를 대량 유통시킬 위험을 키운다. 기존 기사를 읽은 독자가 새로운 기사를 읽을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 보도한 다른 언론사가 고침 기사를 반드시 보도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팩트체크 과정의 결락에 대해 한 응답자는

〈연합뉴스〉의 팩트체크 과정이 부실한 것은 인력과 시간 부족이 원인이며, 전문가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하면, 〈연합뉴스〉의 팩트체크 시스템은 모든 기사를 점검하는 조직적 체계는 아니며, 일부 별개의 기사를 생산하는 특집 부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팩트체크 기능은 기자 개개인의 지식과 역량, 저널리스트적 사명감과 책임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언론사와 독자들에게 동시에 전달되는 〈연합뉴스〉의 특징 및 영향력과 백신접종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조직적 차원의 팩트체크 시스템의 결락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은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대상에게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것이지만, 허약한 팩트체크 시스템으로 인하여 오보가 생산되고, 허위정보가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것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의 본령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2) 〈연합뉴스〉의 코로나19 백신접종 뉴스 생산의 조건

(1) 디지털화로 인한 타깃 오디언스에 대한 분산된 인식

첫 번째 연구 문제가 코로나 19 백신접종 뉴스생산 관행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이러한 〈연합뉴스〉의 뉴스생산 관행을 가능하게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생산의 조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뉴스 시장에서 〈연합뉴스〉의 위상이 바뀌고 있다. 타 언론사에 기사를 제공하는 뉴스 도매상에서 뉴스포털 등을 통해 뉴스 소비자에게 직접 기사를 전달하는 소매상 역할도 커짐에 따라 〈연합뉴스〉의 구성원들의 타깃 오디언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인터뷰 과정에서 응답자에 따라 자신이 염두에 두는 타깃 오디언스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뉴스 도매상으로서 여타 언론사의 종사자를 타깃 오디언스로 생각하는 기자가 있는가 하면, 일반 독자를 주 독자로 생각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타깃 오디언스로 언론사 기자를 상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구성원들이 뉴스의 타깃 오디언스에 대해 분산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저는 제 기사를 언론사 기자들이 참고한다고 생각하고 씁니다. 왜냐하면 그런 목적을 두지 않으면 길고 많은 기사가 필요 없거든요. 제가 쓰는 기사들은 언론사에서 책상에 앉아 우리 기사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빨리 볼 것이니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쓰죠. 취사선택을 할 수 있도록!” (A)

하지만 이 응답지는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상정한 기사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즉, 독자의 호기심을 끝만 한 특별한 기사가 그것이다. 이러한 답변을 통해 <연합뉴스>는 뉴스 아이템에 따라서 타깃 오디언스를 다르게 설정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뉴스를 구성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저희가 매일리하게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루틴한 기사를 많이 쓰는데, 만약에 이 루틴을 벗어나는 특별한 일이 나왔다 하면, 그 기사를 처리한 후에 아니면 그 기사를 처리하기 전에 그 특별한 것을 끄집어내서 빨리 서비스를 하는 거죠. “세상에 이런 특별한 일이 생겼어”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죠.” (A)

반면에 타깃 오디언스를 설정하지 않고 언론사와 일반 독자 모두 다 함께 볼 수 있는 기사를 쓴다는 답변도 있었다.

“특정 타깃 선정하여 쓰진 않습니다. 이를 수치화한다면 5 대 5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나 이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도매뉴스이기도 하고 소매뉴스이기도 합니다. 기자들에게도 공급이 되는 동시에 일반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

이렇게 타깃 오디언스에 대한 다양한 답변은 <연합뉴스>가 타 언론사의 기사와 함께 포털에 동시에 노출되고 경쟁해야 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뉴스 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정체성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응답지는 타깃 오디언스가 일반 독자로 상정됨에 따라 <연합뉴스>의 기사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20년 전에는 일반 독자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언론사와 정책 결정자를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뉴스가 딱딱했어요. 그런데, 일반 독자에게 주 수용자가 되면서 독자 친화적인 기사가 됐죠. 제목도 표현도 그렇고, 제목이 길어졌어요. 문장도 유려해야 하고, 용어도 쉬어져야 하고 신경을 쓰죠. 예전에 입사할 때만 해도 제목은 40바이트 넘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60바이트까지로 늘었죠. 이것이 포털의 경쟁과도 연결되는 거죠.” (D)

<연합뉴스> 구성원들 사이에서 타깃 오디언스에 대한 인식은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한 응답지는 일반 시민과 정부 정책 당국자, 그리고 다른 언론사라는 다양한 표적을

업무에 두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른 언론사 논설위원이나 정부 당국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가 그날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미리 내보내면 타 언론사들이 사설 아이템 선정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방지의 경우는 ‘연합시론’을 그대로 실는 경우도 있고요.”(F)

‘연합시론’을 쓰는 논설위원들도 취재 기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타깃 오디언스를 상정하고 있었다. 미디어의 경쟁 환경과 언론사의 역할이 변화하면서 타깃 오디언스가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구성원들 사이에서 타깃 오디언스에 대한 인식이 다르면, 언론사의 정체성과 뉴스의 내용 및 보도방향에서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타언론사가 타깃이면 속보성과 정확성이 중요하고, 일반 대중을 타깃으로 생각한다면 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대중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선정적인 기사의 비중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명료한 편집방침의 부재와 타깃 오디언스의 분산은 그런 점에서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합뉴스>의 초점이 흐릿한 감염병 보도와도 따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보도와 자족적 효능감

인터뷰에 참여한 기자들은 <연합뉴스>가 한국 언론사 중 가장 촘촘하게 전국의 시 단위까지 커버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백신집중 보도에서 빛을 발했다고 밝혔다. 전국에 13본부, 20곳의 주재 지역을 갖고있는 <연합뉴스>는 일반적인 언론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촘촘하고 광범위한 취재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이 타사와는 다른 독자적인 뉴스를 생산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저희가 6시와 9시에 각 전국부랑 다 같이 취재를 하거든요. 각 시청 도청에 확진자 수를 물어봐서 6시 9시에 서비스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3000명을 처음 넘었거나 7000명을 처음 넘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 같이 신문에 써주죠. 6시에 몇 명, 9시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잠정 집계 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집계와는) 다른 저희 집계치입니다.”(C)

<연합뉴스>가 정부 당국의 집계와는 별도로 자체 취재진이 전국 각지에서 집계한 내용을 빠

르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사태의 변화를 긴급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상 반응이 생긴 사람들은 국민청원에 자기의 스토리를 올려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다 받아쎬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그런 기사를 한 번도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이상반응이 백신 때문이라는 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데 그것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합리적이지 않다’, ‘부적절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기사는 쓰지 않고 지역 본부에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는 방식으로 했어요.” (A)

전국적인 네트워크는 국민청원에 올라온 의견을 곧바로 기사화하지 않고, 지역 본부에서 취재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사 가치와 합리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적 네트워크라는 생산의 조건을 백신접종 뉴스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실질적 조건으로 견인했는지에 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반면에 전국 네트워크라는 뉴스생산의 조건이 코로나 확진자 수 확인 상황에서 발 빠른 뉴스를 가능하게 했고 구성원의 효능감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의 효능감은 백신 보도에서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게 사회적 합의라는 생각을 공유하며, 언론 보도의 합리성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는 답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우려와는 대조적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답변도 있었다. 보도 목표를 백신접종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으로 두고, 전문가의 논평을 중심으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기사를 쓰려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올해는 병원 전문가 코멘트 위주로 기사를 썼는데, <연합뉴스>는 왜곡된 시선을 거두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에 불안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불안은 존재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마구잡이로 쓰는 기사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기자들은 그런 점을 인지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백신의 효용을 알려주며 이상 반응을 보도하고 있어요.” (B)

<연합뉴스>의 기자들은 정부 당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정부의 정책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정책의 방향에 대한 제안을 거듭하며 정부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정부 정책의 보완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족적 효능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기사를 쓰면) 항상 (정책에) 반응이 됩니다. 쓴 기사를 매일 모니터링하는데 정부도 급박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빈틈이 있거든요. 그 빈틈을 저희가 지적을 하면 메워지는 거죠… 이런 부분이 기자들이 보람을 느낄 만한 일들이죠.” (A)

‘연합시론’을 쓰는 참여자들도 백신접종을 독려하는 여론 형성과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한다는 자족적 효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촘촘한 전국 네트워크와 같이 정부 정책과 여타 미디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생산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오보를 생산했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여타 미디어의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팩트체크 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를 ‘자족적인 효능감’이라고 평가했다.

(3) 전문 인력의 부족

<연합뉴스>의 백신접종 뉴스 생산과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응답자들은 하나같이 과도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을 언급했다. 응답자들은 하루에 많게는 10개 이상의 기사를 써야 한다고 응답했다.

“업무량도 많고 강도도 세고 그래서 2년간 거의 점심을 제대로 먹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일하고 아무튼 그렇죠. 일의 양이 너무 많아요… 오전 11시에 브리핑이 있고 오후 2시에 브리핑이 있어서 하루에 두 번 있는데, 11시에 브리핑을 듣고 기사를 쓰면 1시가 되고 또 준비하다 보면 바로 2시가 되고, 인력 부족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C)

팬데믹 상황에서 <연합뉴스>는 실시간 속보를 끊임없이 생산해야 하는 국가기간 뉴스 통신사이기 때문에 뉴스 인력과 전문가 부족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한 응답자는 전문가와 접촉하는 것이 쉽지 않고, 독자들이 기사를 믿지 않고, 써야 할 기사가 너무 많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문가와 접촉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를 독자들이 믿지 않으니깐. 그리고 기사가 너무 많다. 사람은 적고 업무는 많다. (A)

‘연합시론’을 쓰는 구성원들 역시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과학 영역을 다룰 때 정확한

심층 보도가 필요하지만, <연합뉴스>는 별도의 전문 필진을 두고 시론이나 논설을 쓰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논설위원 가운데 별도의 보건 역학 전문가가 없으며, 논설위원 누구나 이 문제를 다룬다고 응답했다. 이 때문에 백신접종에 대해 다소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론이 나갈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논설위원 중 보건 역학 문제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없어요. 논설위원실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부문별로 업무 분장을 합니다. 백신접종 이어템은 논설위원들이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문제인 것은 사실이죠.”(E)

이러한 내부 현실을 볼 때, ‘연합시론’은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관련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일반적인 주장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경영악화 속에서 인건비 절감에 몰두하고 있는 만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지만, 보도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 인력의 충원은 급선무로 보인다. 다른 답변자는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기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해결책으로 인력 재교육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아쉽네요. 인력 차원의 문제 말고는 재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 보도라고 하면 과도한 불안 조장이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지에서 나온 공포를 없앨 수 있습니다.”(D)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의료 과학 분야의 전문가 부족은 <연합뉴스>의 백신접종 보도의 현재를 가늠하게 하는 생산조건의 하나이다. 인력 부족은 언론의 신뢰도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언급되는 문제이다. 기존 인력의 재교육이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위기가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 충원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중요한 투자 영역임이 분명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코로나19 백신접종 뉴스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조직 내부의 생산 관행을 통해 파악하고자 시작되었다. 내부 구성원들과

의 인터뷰를 통해 <연합뉴스> 백신접종 뉴스의 생산관행의 특징은 무엇이며, 뉴스 생산의 조건은 어떠한지 분석했다. 기자 인터뷰 결과, <연합뉴스>의 뉴스생산 관행의 특징으로 아이템 선정과 취재 및 보도 방향에서 정부정책 순응적 뉴스 선택과 SNS를 통한 검증 부족한 취재, 백신접종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조가 두드러졌다. 뉴스 편집과정에서는 공유되지 않는 불투명한 편집방침, 팩트체크와 게이트키퍼 과정의 결락을 발견할 수 있었다. 뉴스 생산의 조건으로는 디지털화로 인한 타깃 오디언스에 대한 분산된 인식,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보도와 자족적 효능감, 그리고 전문 인력의 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중 심각한 지점은 백신접종에 관한 <연합뉴스>의 뉴스 생산과정에서 명료한 편집방침이나 방향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감염병 보도 준칙’이 마련되었지만, 뉴스 생산과정에서 활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합뉴스>만의 편집방침도 발견되지 않았다. 전문 연구자의 견해라 하더라도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기사 제목과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한국기자협회 외, 2020, 4, 28). 하지만, 다수의 오보와 생산자 인터뷰 결과를 고려하면, <연합뉴스>가 ‘감염병 보도 준칙’을 잘 지켰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속보 경쟁에 집중하느라 편집과정에서 정식 절차로서의 게이트키퍼 과정이 누락된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팩트체크나 게이트키퍼 과정 부족은 자칫하면 심각한 오보를 양산할 수 있다. 팬데믹 기간에 발생한 오보는 평상시의 오보에 비해 사회에 끼치는 위험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연합뉴스>의 오보는 사회적 재앙일 수 있다. ‘기자-데스크’의 단순한 게이트키퍼 과정과 전체 기사를 검증하는 전사적인 팩트체크 체계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오보의 원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성원들은 속보성이라는 가치를 위해 기사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 번의 오보가 미치게 될 수많은 언론사를 통한 파급효과의 심각성은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감염병 이슈에 대해 무정파적인 입지를 견지하며 적극적으로 취재하여 해설하지 않은 점도 국가기간 통신사의 책임감과 거리가 있다. 더불어 정부 발표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관급 기사를 발신하는 역할에 치중함으로써 대중의 염려나 우려 등에 대한 보도를 소홀히 한 것도 한계로 드러났다. 팬데믹 기간에 <연합뉴스>가 대중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보도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가 전국적 규모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점이나, 전문 인력의 부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전염병이 극성이던 시기에 <연합뉴스>가 적극적인 취재와 정확한 보도를 통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대중에게 안전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면, 사회적 혼란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안전감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가장 돋보인 언론사는 〈뉴욕타임스〉였다. 〈뉴욕타임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고,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보다 한 달 반 빠르게 팬데믹을 경고하는 기사를 출고했다. 또한 기존 뉴스룸에 그어져 있던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부서의 기자들을 모아 빅 뉴스룸을 만들고 코로나19 이슈를 취재했다. 홍콩 지부와 런던 지부, 뉴욕 본사는 번갈아 가며 하루 종일 ‘코로나19 라이브 브리핑’을 운영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트래커(Coronavirus Vaccine Tracker)’를 통해 코로나 19에 대한 정보를 명료하게 집대성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보도가 가능한 것은 대부분 언론사가 과학 기사를 줄였을 때 그 반대로 갔고, 콘텐츠가 아닌 저널리즘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 시대 기억될 단 하나의 언론’으로 손꼽히게 되는 영광과 6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얻게 되었다. 〈뉴욕타임스〉가 추구하는 저널리즘은 단편적인 팩트에 머무르지 않는다. 권력을 감시하는 전통적인 ‘워치독(watch dog)’ 역할뿐만 아니라 복잡한 이슈를 안내하는 ‘가이드독(guide dog)’까지 저널리즘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는다(We seek the truth and help people understand the world)”라는 〈뉴욕타임스〉의 사명은 워치독과 가이드독이라는 두 방향 모두를 비춘다(김연희, 2020, 11, 19).

영국 일간 〈가디언〉 역시 코로나19 보도와 관련한 가디언의 약속을 전했다. 코로나19에 대해 필요한 뉴스와 정보,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제공할 것이며, 보도에서 전문 지식, 과학적 지식 및 신중한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을 제공할겠다는 다짐이다. 또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독자 커뮤니티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독자들의 질문과 독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언은 믿을 수 없는 보도들과 정보들이 횡행하던 팬데믹 기간에 독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의 전염병 등 재난 보도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연합뉴스〉 뉴스룸 구조의 대대적인 혁신이다. 사회적 대재앙이 발생했을 때, 600명이나 되는 소속 기자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재조직할 수 있는 편집국의 강력한 리더십과 유연한 조직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나 적극적인 취재의 부족 등은 하나의 언론사로서의 편집의 지휘계통체계가 연약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 인력의 부족 역시 출입처 중심의 인력 배치를 유연하게 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한다면 해결할 부

분도 있다 하겠다. 더 나아가 뉴스 생산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뉴스 생산의 초점은 아쉽다. 코로나19 백신 보도는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접 관련되므로 뉴스 취재원으로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인용하고 여론을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도 자료에 의존하거나 받아쓰기에 치중할 경우 현장에서 실제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이 문제이며, 그리고 해결 방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끝으로 팩트체크와 게이트키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독자를 직접 만나는 <연합뉴스>는 일반 언론사와 클릭 경쟁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속보성과 선정성이라는 두 가지 위험요인에 휘말리고 있다. 국가기간 뉴스통신사가 민간 언론사와 함께 클릭 경쟁을 한다는 것은 공론장의 건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속보성과 선정성을 앞세우며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파할 경우 다른 언론 매체가 인용하고, 포털을 경유해 관련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며 인포데믹으로 커져가는 것을 우리 사회가 목격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백신접종 정보는 공개되기 전에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 검증을 거치고 또 거쳐야 한다. 독일 잡지 '슈피겔(Spiegel)'은 자사 기자가 직접 취재하지 않거나 최고 전문가의 인용이 아니면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슈피겔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한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정점에 이르렀던 2021년 연말에 수행된 연구로, 생산자 인터뷰를 수행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서 이뤄졌기에 연구 결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몇 번의 오보로 인해 <연합뉴스>의 평판도 좋지 않은 시기여서 인터뷰 대상자들의 답변에서 자기 검열의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응답자 선정을 꼼꼼하게 하고, 질문과 응답을 반복하면서 두드러진 응답을 추출하며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용이하지 않은 시기와 장소에서 실친한 연구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자들에게 학술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 본 연구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라는 특수한 정체성을 가진 매체에 한정되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보편적인 다수의 언론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코로나19 백신접종에 관해 뉴스를 생산했는지에 대해 열정적인 연구자가 심도 있고 꼼꼼하게 후속 연구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Beck, A. (2003). *Cultural work: Understanding the cultural industries*. London: Routledge.
- Berkowitz, D. A., & Liu, Z. (2016). Studying news production: From process to meanings. In C. Paterson, D. Lee, A. Saha, & A. Zoellner (Eds.), *Advancing media production research: Shifting sites, methods, and politics* (pp. 68-78). Basingstoke, UK: Palgrave Macmillan.
- Breed, W. (1955). Social control in the newsroom: A functional analysis. *Social Forces*, 33(4), 326-335.
- Byeon, J. K. (2020, November 18). COVID-19 asks media around the world. *Sisain*, Volume 688, Retrieved from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32>
- Byeon, J. K. (2020, December 1). There is K quarantine, but why is there no ‘K press’?. *Sisain*, Volume 689, 30-35. Retrieved from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70>
- Chen, T., Dai, M., Xia, S., & Zhou, Y. (2021). Do messages matter? Investigating the combined effects of framing, outcome uncertainty, and number format on COVID-19 vaccination attitudes and intention. *Health Communication*, 37(8), 944-951.
- Choi, Y. J. (2016). A study on the identity of public news agency in Korea - The Korean national news agency’s public role and accountability.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15(3), 97-130.
- Hay, J., Coups, E. J., Ford, J., & DiBonaventura, M. (2009). Exposure to mass media health information, skin cancer beliefs, and sun protection behaviors in a United States probability sampl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61(5), 783-792.
- Hesmondhalgh, D. (2006). *Media production*. Maidenhead, UK: Open University Press.
- Hong, J. H., & Cha, H. W. (2022). Network analysis on the diffusion of negative issue related with the government’s COVID-19 measures in a crisis situati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8(2), 109-116.
- Hong, J. N., & Ahn, S. T. (2022). COVID-19 media reports and vaccination intentions : Mediating effects of infection susceptibility and susceptibility to adverse effects of vaccin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6(1), 25-42.
- Lim, J. S. (2018, October 29). *A study on the role of Yonhap News in comparison with international news agencies: Focusing on the risks and opportunities of journalism*. Paper presented at the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Seoul.
- Lim, J. S. (2019). An analysis of roles of the Yonhap News Agency through a case study of international

- news agencie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9(2), 112-153.
- Lim, Y. H. (2015). The state of television production studies in Korea -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52(1), 5-32.
- Journalists Association, Korea Broadcasting Journalist Association, Korea Science Journalists Association(2020, April 28). *Infectious disease reporting rules*. Retrieved from 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0
- Kim, C. R. (2010). A study on changes in perceptions of foreign correspondents on national key news agency and Yonhap News: Changes in 2008 after enactment of national key communications dictionary and special act in 2003. *Injenonchong*, 25(1), 79-110.
- Kim, C. R. (2018, May 26). *Era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the national key news agency and Yonhap News*. Paper presented at the Spring Annual Meeting of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Seoul.
- Kim, D. A. (2020, April 2). Yonhap reported "the first medical worker in Korea to die from Corona 19", turned out to be a misinformation, Yonhap acknowledged the false report in about 2 hours and deleted the article.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7492>
- Kim, D. Y. (2020, April 3). "I apologize" for misinformation about the death of a doctor infected with Corona 19. *Mediatoday*, Retrieved from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288>
- Kim, E. J., & Bang, J. B. (2010). Change of news frames in news agency's reports on elections : Focusing on Yonhap News Agency's reports on the presidential elections.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24(5), 90-125.
- Kim, G. H., & Lee, S. Y. (2011). A study of news presentation and headline editing by news service agency web sites.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25(1), 77-115.
- Kim, H. N., Jang, H. I., & Jang, S. J. (2021). Political psychology of vaccination: COVID-19 conspiracy theories, evaluation of government responses, and vaccination intention. *Korean Association of Party Studies*, 20(3), 99-130.
- Kim, J. I. (2021, March 4). *COVID-19 vaccine report, what is the problem?*. Paper presented at the Freemedia - New Press Forum Debate Presentation, Seoul.
- Kim, Y. H. (2020, November 19). The only media to be remembered in the corona era. *Sisain*, Volume 688,

Retrieved from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27>

- Kim, Y. H. (2020, November 23). How did the best coverage of COVID-19 come about?. *Sisain*, Volume 688, Retrieved from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03>
- Kim, Y. H. (2020, November 24a). Telling the most important story now, science journalism [Interview] / Carl Zimmer [Interviewee]. *Sisain*, Volume 688, 18-20.
- Kim, Y. H. (2020, November 24b). The role of the media in the pandemic era according to a 44-year-old infectious disease reporter. *Sisain*, Volume 688, Retrieved from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04>
- Kim, Y. H. (2020, December 1). The first press to create COVID-19 infographic [Interview] / Adolfo Arans [Interviewee]. *Sisain*, Volume 689, 36-37.
- Kim, Y. H. (2020, December 15). What vaccine should the media get. *Sisain*, Volume 691, 34-37. Retrieved from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76>
- Kim, Y. H. (2021, April 13). Politicized corona inspection, K-quarantine shakes. *Sisain*, Volume 708, 22-27. Retrieved from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23>
- Kim, Y. U., So, D. I., & Kim, H. G. (2022). The effects of message types on the intention to vaccinate against COVID-19 : The analysis focusing on the inoculation theory.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114, 30-67.
- Kwon, T. H. (2020, May 1) The purpose and process of enacting the infectious disease reporting rules. *Korea Policy Briefing*. Retrieved from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72036&call_from=naver_news
- Lee, H. H., & Jeong, S. H. (2014). A study on disaster reporting trends of world news agency: Focusing on comparison of AP, AFP, DPA, Kyodo News, and Yonhap News. *Journalism & Communication*, 18(2), 157-183.
- Lee, H. M. (2021, May). The media, which only reported the dangers excessively, needs to balance as an information transmitter: Vaccination and the media. *Newspaper and Broadcast*, Volume 605, 90-93.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Lee, J. W. (2020, April 3). Korea's first medical worker dies from COVID-19. *Seouldailynews*, Retrieved from <https://www.seodaily.com/NewsView/1Z1BZS24JH>
- Lee, M. G., & Kang, Y. G. (2015). The study of big data journalism use of practical measures for news agency : In-depth interview with Yonhapnews reporters and specialists. *Media and Performing Arts*

Studies, 10(1), 187-219.

- Lee, M. G., & Yuk, E. H. (2014). A study on visual news frames between Korea and the US regarding Sewol Ferry disaster reports: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of report photos from Yonhap News and associated press. *Korean Speech Communication*, 25, 216-254.
- Lee, M. N., & Hong, J. H. (2021). A study on the diffusion of messages on social media during the pandemic -Analysis of YouTube videos related to the COVID-19 vaccine. *The Journal of Image and Cultural Contents*, 23, 331-369.
- Lee, O. H., & Lee, S. H. (2019). Exploring the occupational lives of young journalists that once worked for newspapers : Focusing on Korean major national daily newspapers. *Media and Society Association*, 27(4), 152-214.
- Lee, W. S. (2021). Conceptual and theoretical review of the COVID-19 “Infodemic” phenomenon : Integrated application of communication theory and behavioral economics theory. *Communication Theories*, 17(3), 306-375.
- Lee, W. S., Jeong, Y. H., & Hong, K. S. (2022). Agenda structure and content of COVID-19 vaccination news: Through analysis of the news content of, the national key news agency. *Health Communication Research*, 21(2), 1-49.
- Liu, M., Zhang, H., & Huang, H. (2020). Media exposure to COVID-19 information, risk perception, social and geographical proximity, and self-rated anxiety in China. *BMC Public Health*, 20(1), 1-8.
- Nam, J. I., & Choi, Y. J. (2013). The roles of the national news agency in digital media environm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3(1), 92-124.
- Palm, R., Bolsen, T., & Kingsland, J. T. (2021). The effect of frames on COVID-19 vaccine hesitancy. *medRxiv*.
- Puri, N., Coomes, E. A., Haghbayan, H., & Gunaratne, K. (2020). Social media and vaccine hesitancy: New updates for the era of COVID-19 and globalized infectious diseases. *Human Vaccines & Immunotherapeutics*, 16, 2586-2593.
- Ryu, S. H., & Chung, C. J. (2020). Fact-checking status and characteristics: Focusing on COVID-19 in Korea.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13(2), 271-298.
- Shoemaker, P. J., & Reese, S. D. (1996). *Mediating the message* (pp. 781-795). White Plains, NY: Longman.
- Sim, Y. S. (2018). *A study on the role of Yonhap News in comparison with international news agencies: Focusing on the risks and opportunities of journalism*. Paper presented at the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Seoul.

Strait Times (2021, October 27) New Covid-19 cases in S'pore breach 5,000-mark for the first time; MOH monitoring 'unusual surge'.

Tuchman, G. (1972). Objectivity as strategic ritual: An examination of newsmen's notions of objectiv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4), 660-679.

Tuchman, G. (1978). Professionalism as an agent of legitim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8(2), 106-112.

Xu, Z., Ellis, L., & Laffidy, M. (2020). News frames and news exposure predicting flu vaccination uptake: Evidence from US newspapers, 2011-2018 using computational methods. *Health Communication*, 37(1), 74-82.

Yang, H. J. (2021). Al-Jazeera and Al-Arabiyya's framing war and Yonhap News's reframe: News texts on the Gulf Crisis. *Korean Journal of the Middle East Studies*, 41(3), 215-248.

Yonhap News (n.d.). <https://www.yna.co.kr/aboutus/company>

Yoon, H. J., & Jeong, B. G. (2021). Analysis of media reports on COVID-19 vaccine using topic modeling. *Health and Social Sciences*, 58(12), 5-23.

최초 투고일 2022년 10월 14일
게재 확정일 2023년 03월 27일
논문 수정일 2023년 03월 31일

부록

- 권태훈 (2020, 5, 1). 감염병 보도준칙 제정 취지와 과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김경희·이소현 (2011). 뉴스통신사 웹 사이트의 뉴스구성방식과 기사제목 편집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5권 1호, 77-115.
- 김달아 (2020, 4, 2). 연합 “코로나19로 국내 첫 의료인 사망” 보도, 오보로 밝혀져, 연합, 2시간여만에 오보 인정하고 기사 삭제. <한국기자협회보>. Retrieved from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7492>
- 김도연 (2020, 4, 3). 코로나19 감염의사 사망 오보에 줄줄이 “사과드린다”. <미디어오늘>.
- 김연희 (2020, 11, 19). 코로나 시대 기억될 단 하나의 언론. <시사IN>, 제688호. Retrieved from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27>
- 김연희 (2020, 11, 23). 코로나19 최고의 보도는 어떻게 나왔을까. <시사IN>, 제688호. Retrieved from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03>
- 김연희 (2020, 11, 24a). 지금 가장 중요한 스토리, 과학 저널리즘을 말하다 [인터뷰] / 칼 집머 [인터뷰이]. <시사IN>, 제688호, 18-20.
- 김연희 (2020, 11, 24b). 44년차 감염병 전문기자가 말하는 팬데믹 시대 언론의 역할. <시사IN>, 제688호. Retrieved from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04>
- 김연희 (2020, 12, 1). 코로나19 인포그래픽 처음으로 만든 언론 [인터뷰] / 아돌포 아란스 [인터뷰이]. <시사IN>, 제689호, 36-37.
- 김연희 (2020, 12, 15). 언론은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하나. <시사IN>, 제691호, 34-37. Retrieved from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76>
- 김연희 (2021, 4, 13). 정치화된 코로나 검사, K방역이 흔들린다. <시사IN>, 제708호, 22-27. Retrieved from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23>
- 김영욱·소담이·김혜정 (2022). 메시지 유형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도에 미치는 영향: 접종이론 (inoculation theory)을 중심으로 한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114권, 30-67.
- 김은주·방정배 (2010). 뉴스통신사 선거보도 뉴스프레임 변동 연구 : 연합뉴스의 대선보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4-5호, 90-125.
- 김준일 (2021, 3, 4). <코로나 19 백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자유언론실천재단 - 새언론포럼 토론회 발표문.

- 김창룡 (2010).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에 대한 외신기자들의 인식도 변화연구 : 2003년 국가기간 통신사전과 특별법시행이후 2008년 변화. <仁濟論叢>, 제25권 제1호, 79-110.
- 김창룡 (2018, 5, 26). <한반도 평화시대: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의 역할>. 한국언론정보학회 2018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21-30.
- 김한나·장한일·장승진 (2021). 백신 접종의 정치심리학: 코로나19 음모론, 정부 대응 평가, 그리고 백신 접종 의사. <한국정당학회보>, 20권 3호, 99-130.
- 남재일·최영재 (2013). 디지털 미디어 환경 하에서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의 역할. <언론과학연구>, 13권 1호, 92-124.
- 류승희·정정주 (2020). 팩트체크 현황과 이슈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3권 2호, 271-298.
- 변진경 (2020, 11, 18). 코로나19가 전 세계 언론에 묻는다. <시사IN>, 제688호. Retrieved from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32>
- 변진경 (2020, 12, 1). K방역은 있는데 'K언론'은 왜 없을까. <시사IN>, 제689호, 30-35. Retrieved from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70>
- 심영섭 (2018). <국제적 뉴스 통신사들과의 비교를 통한 연합뉴스의 역할 고찰: 저널리즘의 위험 및 기회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발제문, 30-53.
- 양희정 (2021).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아의 프레임 전쟁과 연합뉴스의 리프레임 : "걸프 위기" 관련 뉴스 텍스트를 중심으로. <韓國中東學會論叢>, 제41권 3호, 215-248.
- 연합뉴스 (n.d.). <https://www.yna.co.kr/aboutus/company>
- 윤현준·정백근 (2021).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언론 보도 양상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통권 58권 12호, 5-23.
- 이미나·홍주현 (2021). 팬데믹 시기 소셜미디어 상의 메시지 확산에 관한 연구 : 코로나19 백신 관련 유튜브 영상 분석. <영상문화콘텐츠연구> 통권 23호, 331-369.
- 이민규·강연곤 (2015). 뉴스통신사의 빅데이터 저널리즘 활용방안 연구 : 연합뉴스 기자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 제10권 1호, 187-219.
- 이민규·육은희 (2014). 세월호 참사 보도 관련 한·미간 비주얼 뉴스 프레임 연구 : 연합뉴스와 AP통신의 보도사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제25호, 216-254.
- 이오현·이석호 (2019). 취재 현장을 떠난 젊은 신문기자들의 직업적 삶에 대한 질적 연구 : 중앙일간지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27권 제4호, 152-214.
- 이완수 (2021). 코로나19 "인포데믹" 현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커뮤니케이션학과 행동과학의 통합

- 적용. <커뮤니케이션 이론>, 17권 3호, 306-375.
- 이완수·정영희·홍경수 (2022). 코로나19 백신 접종 뉴스 보도 형식과 의제 구성: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사례를 통해.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21(2), 1-49.
- 이주원 (2020, 4, 3). 코로나19로 국내 의료인 첫 사망. <서울경제>. Retrieved from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BZS24JH>
- 이화행·정성호 (2014). 세계 뉴스통신사의 재난 보도 경향 연구 : AP, AFP, DPA, 교도통신, 연합뉴스의 비교를 중심으로. <언론학연구>, 제18권 제2호, 157-183.
- 이혁민 (2021, 5). 위험성만 과도하게 보도한 언론, 정보 전달자로서 균형 맞출 필요 : 백신 예방접종과 언론. <신문과 방송>, 통권 605호, 90-93.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임영호 (2015). 한국 텔레비전 생산 연구의 실태 진단: 성과, 한계와 가능성. <언론정보연구>, 52권 1호, 5-32.
- 임종섭 (2018, 10, 29). <국제적 뉴스 통신사들과의 비교를 통한 연합뉴스의 역할 고찰: 저널리즘의 위험 및 기회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발제문.
- 임종섭 (2019). 언론 위기 국면에 국제 뉴스 통신사들의 사례 분석을 통한 연합뉴스의 역할 고찰. <언론과학연구>, 제19권 제2호, 112-153.
- 최영재 (2016). 한국의 공영뉴스통신 정체성 연구-국가기간통신사의 공적 역할과 책무. <언론과 법>, 15권 3호, 97-130.
-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2020, 4, 28). <감염병 보도준칙>.
- 홍주나·안순태 (2022). 코로나19 언론 보도와 백신 접종 의도 : 감염 취약성과 백신 부작용 취약성의 매개효과. <한국언론학보>, 제66권 1호, 25-42.
- 홍주현·차희원 (2022).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코로나 19 대책 관련 부정적 이슈의 확산 네트워크 분석. <문화기술의 융합>, 제8권 제2호, 109-116.
- Hesmondhalgh, D. (2006). *Media production*. Maidenhead, UK: Open University Press. 임영환 (역) (2010). <미디어 생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의 코로나19 백신접종 뉴스생산 관행 <연합뉴스> 기자 인터뷰를 통해

홍경수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부교수)

이완수

(동서대학교 미디어콘텐츠대학 교수)

정영희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연구원)

본 연구는 백신접종 보도에서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연합뉴스)의 보도가 충실하지 못한 이유를 조직 내부의 생산 관행에서 파악하고자 시작했다. 내부 구성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뉴스의 생산 관행의 특징은 무엇이며, 뉴스 생산의 조건은 어떠한지 파악함으로써 보도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분석을 위해 일선 취재기자 3명, 부장급 데스크 1명, 그리고 논설위원 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했다. 뉴스를 생산하는 구성원 인터뷰 결과,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연합뉴스>의 뉴스의 생산 관행의 특징을 아이템 선정 및 취재보도 방향과 뉴스 편집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아이템 선정 및 취재보도 방향에서 ① 정부 정책 순응적 뉴스 선택과 SNS를 통한 검증 부족한 취재 ② 백신접종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조가 발견되었다. 뉴스 편집과정에서는 ① 공유되지 않는 불투명한 편집방침 ② 팩트체크와 게이트키퍼 과정의 결락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뉴스 생산 관행의 특징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인 뉴스 생산의 조건으로는 ① 디지털화로 인한 타깃 오디언스에 대한 분산된 인식, ②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보도와 자족적 효능감, ③ 전문 인력의 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연합뉴스>의 백신접종 관련 보도의 특성을 설명하는 원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앞으로 <연합뉴스>의 전염병 등 재난 보도를 계기로 뉴스룸 구조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회적 대재앙이 발생했을 때, 소속 기자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재조직할 수 있는 편집국의 강력한 리더십과 유연한 조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뉴스 생산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뉴스 생산 초점의 이동을 제안했다. 끝으로 팩트체크와 게이트키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독자를 직접 만나는 <연합뉴스>는 일반 언론사와 클릭 경쟁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속보성과 선정성이라는 두 가지 위험요인에 휘말리고 있다. 국가기간 뉴스통신사가 민간 언론사와 함께 클릭 경쟁을 한다는 것은 공론장의 건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이 틀림없다. 속보성과 선정성을 앞세우며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파할 경우 다른 언론 매체가 인용하고, 포털을 경유해 관련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며 인포데믹으로 커지는 것을 우리 사회가 목격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직결된 백신접종 정보는 공개되기 전에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 검증을 거치고 또 거처야 한다. 연구자들은 <연합뉴스>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공영 언론사'라는 점을 환기하며 철저한 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핵심어 : <연합뉴스>,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코로나19 백신접종, 게이트키퍼, 뉴스생산 관행